

김기찬 교수 "글로벌 공동연구로 시너지 낼 것"
세계중소학회장에 취임한 김기찬 교수

"인간 중심의 기업가정신을 정립해 경제뿐 아니라 사회가 따뜻해지는 원천으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회장으로 정식 취임한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가 내세운 첫 공약이다. 그는 지난 8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제60회 세계 중소기업대회'에서 ICSB(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회장에 정식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1955년 미국에서 설립된 ICSB는 창업·중소기업과 관련해 교수, 연구자, 정책 입안자, 기업가들이 함께 활동하는 세계 최초의 단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총 13개 지역의 국가 위원회와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창업·중소기업 관련 전 세계인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ICSB 수장이 된 김 교수는 무엇보다도 따뜻한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월가 점령 운동에서 보듯 현재 자본주의는 과도한 빈부 격차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ICSB 60주년을 맞아 기업가정신을 단순히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를 위한 것으로 새로 정의해 따뜻한 사회의 원천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또 ICSB가 협력의 촉매자가 되고, 메가 시너지 창출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 정책 입안자, 학계의 메가 시너지를 창출하고 미국 학자와 아시아 학자, 유럽·남미·아프리카 학자 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연구성과의 메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학교를 운영하고, 인간을 위한 기업가정신과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 시상하는 상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 Link: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62607>